

조기 성문암의 국소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 분석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방사선종양학과학교실,¹⁾ 이비인후과학교실²⁾

김수산^{1)*} · 이상욱¹⁾ · 박진홍¹⁾ · 장승희¹⁾ · 안승도¹⁾

김종훈¹⁾ · 김상윤²⁾ · 남순열²⁾ · 최은경¹⁾

연구목적 : 조기 성문암의 방사선 치료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치료효과, 부작용 및 국소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본 연구에서는 1989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서울중앙병원에서 근치적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병기 0기에서 2기까지의 조기 성문암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. 대상환자의 연령분포는 31~80세(중앙값 : 61세)였으며, 성별은 남자가 72명, 여자가 3명이었다. 1997년 AJCC 분류기준에 따른 병기는 0기 3명, 1기 55명, 2기 17명이었으며, 조직학적 소견은 모두 편평상피암이었다. 방사선 치료는 4MV X-선을 이용하여 원발 병소를 포함하는 좌우 대칭 조사면을 썬기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. 12명의 환자는 1일 2회씩 66~68.4 Gy/1.2Gy, 36명은 1일 1회씩 64.8~75.6Gy/1.8Gy, 27명은 1일 1회씩 60~66Gy/2.0Gy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. 회전 중심점에 조사된 선량은 64.5~75.6Gy에 분포하였으며 중앙값은 68.1Gy였다. 전체 환자의 추적기간은 3~106개월(중앙값 : 48개월)이었다.

결 과 :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.1%, 5년 무병 생존율은 82.1%이었다. 전체 환자 75명 중 73명(97.3%)에서 완전관해를, 1명에서 부분관해를 보였고 1명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. 추적관찰 중 12명(16.0%)의 환자에서 4~77

개월(중앙값 : 11개월)에 국소재발이 발생하였으며, 경부림프절에 재발한 경우는 1명이었으며 이차 재발시 원격장기에서 재발한 경우는 없었다. 국소재발이 발생한 12명 중 8명에서 구제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 8명이 무병생존하였다. 병기별 5년 생존율은 0기가 100%, 1기가 90.4%, 2기가 90.1%였으며($p=0.7233$), 5년 무병 생존율은 0기가 100%, 1기가 82.8%, 2기가 76.9%이었다($p=0.7756$). 중앙값에 따라 회전중심 선량을 나누었을 때, 5년 무병 생존율에서 차이를 보였으나(75.5% vs 90.1%)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($p=0.11$). 방사선 조사의 부작용으로는 거의 모든 예에서 인후통을 호소하였으나 심한 후두부종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치료 후 추적과정에서 음성의 질은 우수하였다.

결 론 :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조기 성문암에서 만족스러운 치료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. 국소 제어율은 회전중심 선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차이를 보였다. 따라서 국소 제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, 향후 보다 장기간의 추적관찰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중심 단어 : 조기 성문암 · 방사선 치료 · 국소 제어율.